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672호 현대불교
2008년 3월 26일(음력 2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누구에게나 재료는 있으니 그냥 여여하게 쓰세요!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참 컸고 또 스님의 노고도 컸습니다. 저번 날 여겨 스님이 개원식에 와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다른 약속도 있고 그래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못 온다고 했습니다. 속으론 안 그러면서도 말입니다. 사람이려면 내가 그럭저럭 때는 아니잖습니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슬프게 생각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너 아니면 뭐 못하랴'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이 항상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스님에게 감사하고 또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짙은 햇빛 아래 잎 속으로 과실이 주렁주렁 열렸더군요. 그런데 제일 큰 과실을 하나 딱 따 보니까 안은 텅 비어있어요. 그러나 거죽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을 왜 그렇게 흠집을 내셨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심하게 야단을 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법당에 척 들어서니까 부처님 눈이 꼭 짓눌려진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야단을 좀 치라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그러나 부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부처님께서 화난 것도 아니고 화 안 난 것도 아니시지마는 호통을 좀 치라고 하신 뜻은 아마, 어느 거든지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맞부딪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서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없이 발전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생각을 안 하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고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인데, 그걸 또 묘하게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을 한 분 모셔 놓으면 양옆에 문수도 있고 보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귀의를 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 뜻은 아셔야 돼요. 타의나 자의나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지요. 그건 뭐냐? 한 분이 생각을 해서, 즉 부처님의 생각으로서 바로 문수가 생긴 거죠. 문수는 생각을 하는 중이니까 법신이에요. 그게 생각이니까요. 그러니까 보현은 그 생각을 받아서 움죽거리는데, 모든 것을 움죽거리면서 평등하게 보(保)하면서 행해 나갑니다. 보현은 바깥에서, 문수는 안에서 하는 겁니다. 문수가 안에서 지명을 하면 바깥에서는 보현이 하듯이 이것이 바로 '자성 삼보에 귀의한다' 이런 뜻이지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한 생각이 사바세계에서는 관세음이라고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그걸 뭐라고 그럴까, 마음으로 꼬리표를 붙였

다고 그럴까요, 상표라고 그럴까요? 그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붙여 놓고 동방에는 아축이라고 붙여 놓고 서방에는 미륵이라고 붙여 놓고 지전국에는 지장이라고 붙여 놓고... 마음으로 이렇게 붙여 놔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발전이 없고 움죽거리면 입에 밥도 안 들어갈 겁니다. 아마, 또 생각하고 움죽거리라는 동시에 우린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성이 없다면 과학이라든가 우리 일체 생활이라든가 한 국가의 역사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움죽거리고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 보죠. '돌과 돌을 쥐고서 한번 딱 치니까 불이 번쩍 일어나더라. 그런데 그 불이 일어난 거조차도 없느니라.' 그것을 표현하자면 과거는 지금 현실에 짊어지고 나와서 살고 있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가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은 잘 나찰나 돌아가니까 없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모든 게 고정된 게 없이 공해 버렸어요. 그래서 "공한 것을, 본래 공한 것을 어떻게 체험을 합니까? 공이라는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니까 "그 공했다는 것도 공했기 때문에, 본래도 공하고 공이라는 공도 공했기 때문에 공을 체험을 할 수 있습니

다." 이랬대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감이 잡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 거예요. 이것은 최상승의 굴림을 굴리고 가는, 보살들의 굴림에 의한 중용으로서의 용(用)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함도 공했기 때문에 그대로 목마르면 물 마시는 거와 같죠. 그러면 그런 얘기는 접어들까요?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해 드려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내가 항상 그러죠. '이 세상의 인간 모두에게는 자기 마음의 불성 주장자 안테나가 있다. 안테나, 그 위에 레이더망이 설치돼 있다. 그다음 중간에 자동 컴퓨터가 설치돼 있다.'

그러니까 심성 빼놓고는 없어요. 자동 컴퓨터가 설치돼 있고 그 아래 탐지기가 있고 또 팩스와 천체망원경이 설치돼 있어서, 그 다섯 가지가 다 설치돼 있는 겁니다. 레이더망은 위에 설치돼 있어서 빙글빙글 돌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을 다 통신을 합니다. 법계 어디에서 들어오든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다 알고 통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자동적으로 다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생활하는 데 그대로 돼 있습니다. 지금 다른 큰 나라에서는 이거를 연구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자력이니 공력이니 하는 것도, 빛으로 가고 오는 것도 잘 못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처님이 계시기 전에도 진리는 있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그 진리를 깨달아 통달을 해 가지고 49년을 설하셨고 행으로 보여 주셨고 또 그 모든 걸로, 앉은 걸로 보여 주셨고 선 걸로 보여 주셨고 누운 걸로 보여 주셨고 팔발로 디딘 걸로 보여 주셨어요. 손 없는 손을 보여 주셨고 자루 없는 망치를 보여 주셨어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런 설법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첫째는 하늘을 받치고 둘째는 말없이 사방을 둘러보시면서 그 뜻으로 불바퀴를 굴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아래로는 팔발을 가르쳐 주셨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말한 것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그대로 자유스럽고 여여하게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료가 있으니 그냥 여여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날 기쁨으로 빌어먹고 다니는 겁니다. 여기만 하더라도 그렇고 절마다 그냥 무슨 탕화를 여기저기 붙여 놓고 울긋불긋 울긋불긋하게 해 놓질 않나.

우리 마음으로서 불성이 있기 때문에, 즉 그걸 마음내기 이전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내기 이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 있고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움죽거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보에 귀의합니다' 하는 건데, 그저 여기 갖다 놓으면서 이거 따로 보고 저기 갖다 놓으면서 저거 따로 보고, 이렇게 따로따로 찾으려다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 우주의 섭리를 어떻게 다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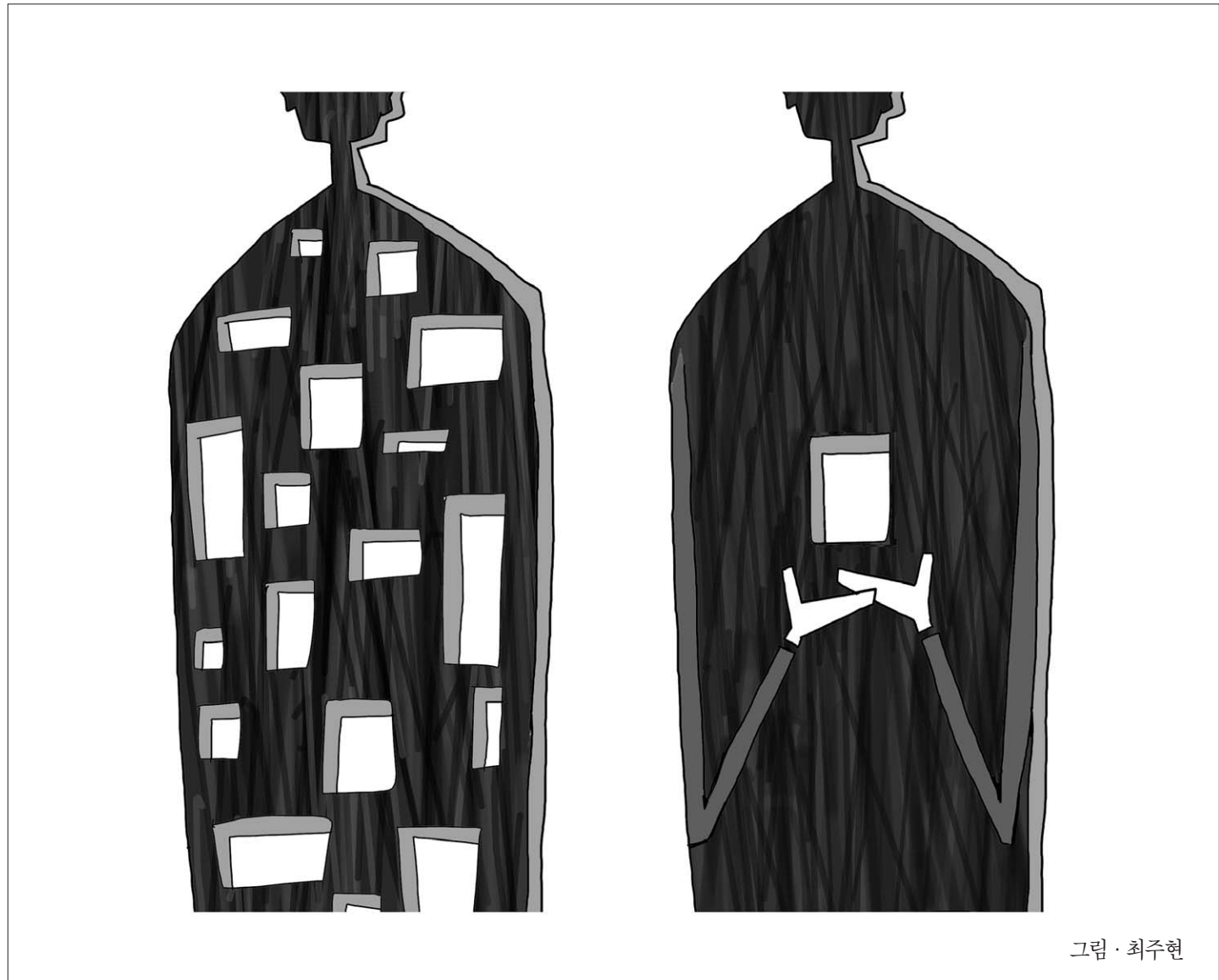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26면으로 계속

책 좀 사주면 안 되나요?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착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세상에 흩날려 전한다든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퍼지지 않으면 스스로 볼 줄 모르고 부추기지 않으면 스스로 행할 줄 모르는 오늘 바람 다투어 안아... 어제는 탁발을 나갔습니다. 신문광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었지요.

500원씩, 천 원씩 보시를 받아 6만원을 모아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사흘은 더 발품을 팔아야 광고비를 충당할 것 같습니다. '스님이 사찰운영을 어떻게 하기에?' 하고 물으시 모르지만 특별한 반연없이 신생사찰을 꾸리자니 포교비용에, 운영비에 쪼들리는 날이 그치지 않았습다. 책을 펴내 사정을 바꿔 보려고 작년 말에 수행지침서인 「**나를 알면 살기 쉽다**」를 펴냈고, 얼마 전에 「**나를 바꾸는 108대 대참회문**」을 냈습니다. 두 권 다 제 나름에 부끄러움이 없겠다 싶었는데 책이 팔리지 않아 사정은 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불자 여러분, 제 책 좀 사주면 안되나요?

전국 불교서점 및 교보, 영풍, 인터넷서점 등에 있습니다.

시방사에서 **적호** 합장

• 포교후원계좌: 대구은행 034-10-003424 (예금주: 시방사)
문의전화 0531654-0408 / 법공양문의 0531253-192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 등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 (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 (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중앙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클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한,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코리아.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발로 해

(특수기능성 두안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널 기능성! 유사품이 가려온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 **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 참선, 명상, 성지순례, 등산, 운전, 고시수험생)
 -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드에서 노폐물, 독소, 나쁜기온 빼는 특급비밀!**
 -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 보들보들, 보충보충 100%보장!**
- 주문처: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 www.법당서점.kr